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창세기 42:18~38

구원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태양은 찬란하게 떠 있지만 태양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둠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떠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독함,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찾으면 찾을수록 찾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 스스로 그분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함으로 우리가 치뤄야 할 죄의 대가, 죽음의 대가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화해의 복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사람의 영혼에는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고독이 변하여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삶의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의 삶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배신한 형 에서를 만날 때까지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재산을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으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한다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배신한 형들을 만나기까지는 정리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야만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을 만나서 화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할 것을 모두 고백하고, 이미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용서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혼자서만 용서한다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를 선언해야 합니다. 용서하면 행복해집니다. 용서를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인생의 행복의 기초적인 요건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자신을 배신한 형들을 만나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좋은 나쁜든 그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축복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병약한 사람입니다. 이 병은 저를 수십년동안 괴롭혀 왔지만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병으로 인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 저주, 슬픔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리

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승화되어 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복인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복이 되고 그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상식과 순리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기근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한 사건이 성취됨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꿈에서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합니다. 또 해와 달과 다른 별들이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요셉의 눈앞에서 이루어 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장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실현되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위장한 목소리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곧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마다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했습니다. 요셉은 자신 앞에 무릎 꿇은 형들을 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거나, 자신의 꿈이 맞았다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무릎 꿇은 것에 통쾌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네 번이나 집요하게 형들을 영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들은 곤란한 지경에 빠집니다.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그들의 말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자 형들은 진땀을 흘리며 난처해 합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진땀을 흘리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이 말을 아버지에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상황을 요셉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 가족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확하고도 결정적인, 정곡을 찌르는 문제를 던졌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형제 아홉 명을 감옥에 넣고 한 명을 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둡니다. 18~20절을 보십시오.

삼 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재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의 생각이 3일만에 바뀝니다. 그래서 아홉 명 대신에 한 명 만을 가두고 나머지를 보내 주면서 곡식을 챙겨주며 고향에 가서 주림을 면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말째 아우만 데려오면 그들의 진실함을 믿고 그들과 무역도 하겠다고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드디어 21절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납니다. 고난의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의 아우의 일로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의 사건과 그 당시의 사건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면의 죄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자꾸만 계속되는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오래전에 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의 죄를 생각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렸던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는 것들을 떠올리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미움, 분노, 한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열매맺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의 사건은 영원히 사장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깊어지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요셉에게 행했던 것이 범죄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오래 전 동생인 요셉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자신들끼리 이야기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들이 현재 받는 고통이 그때 요셉이 당했던 고통의 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고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나온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일은 없었습니까? 사람들은 남들에게 준 고통에 대해서는 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상처준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자신이 과거에 남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많이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준 상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상처만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상처주었던 일들이 자신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는 인생을 일그러뜨리는 문제로 남아있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이런 사건과 난제 앞에서 그들이 받게 된 것은 참회의 복입니다. 회개의 복입니다. 만일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아는 체했다면 이 문제는 땅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피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피상적 믿음이 낳는 문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이 피상성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값싼 은혜와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얕팍하고 깊이가 없습니다. 회개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고 미봉책으로 단지 몇 마디로 끝내 버렸기 때문에 깊은 복은 그 사람에게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견뎌낼 힘이 없고 불평하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참회의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큰 죄를 짓습니다. 그의 회개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죄로 인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1~4절을 보면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뼈가 녹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골수까지 아픈 고통을 느낍니다. 다윗은 죄를 지을 때 주의 손이 밤낮으로 자신을 누르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감상적이고 능력이 없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갈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값'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짜 피값을 치룬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피차 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요셉이 말을 알아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4, 2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납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의 허물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그들이 없는 곳에서 읍니다. 그는 겉으로는 형들을 엄하게 대합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혼낸 후에 괴로워서 뒤에서는 읍니다. 아울러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분 또한 뒤에서 우십니다. 그래도 그분은 지금 당장 손을 쓰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쓰면 우리가 깊이 참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비취진 요셉의 모습은 무서운 사람일 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진심과는 달리 시므온을 취해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곡식을 많이 취해서 그들에게 줍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가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

는 일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죽을 듯 하면서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겠냐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28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요셉은 몰래 형들의 곡식 자루속에 그들이 지불한 돈을 도로 넣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자루를 열어보았다가 돈을 발견하고 놀라고 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했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해 봅니다. 29~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십이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이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합니다. 33,34절을 보십시오.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각기 자루를 쏘고 본즉 각인의 돈뿔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뿔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듣고 놀라고 자루에 든 돈을 보고 또 놀랍니다. 야곱의 공포와 두려움은 극에 달합니다. 36~38절을 보십시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안목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복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누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의 경우처럼 복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인 공포로 가득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보면 야곱과 같은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우연히 세상에 보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신음하는 자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 하는 자에게
미래를 보여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겁 먹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